

KATECH 이슈브리핑

⊙ 주간 이슈 리뷰

- GM, New York 州 Tonawanda 엔진 공장에 8.88억 달러 투자
- Toyota·Nissan, 中 특화 전기차로 중국 시장 재공략 시동
- 중국 승용차 자동긴급제동장치(AEB) 장착 의무화 동향
- 인도 Motherson의 Marelli 인수 추진 동향

⊙ 이슈포커스

- BYD 주도하에 중국 자동차 업계 가격인하 경쟁 재격화

◆ GM, New York 州 Tonawanda 엔진 공장에 8.88억 달러 투자

- '23.1월 Flint 엔진 공장 투자(5억 달러)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6세대 V-8 엔진 투자 계획으로, 엔진 공장 대상 투자로는 동사 최대 규모임
- * 동사의 V-8 엔진은 대형 픽업 트럭 및 SUV용으로 동 공장에서는 2027년부터 생산 예정임
- 美 언론사 등은 이번 발표의 배경으로 자국 내 전기차 속도 조절 기조를 지목
- * 최근 美 상·하원에서 California 州의 '내연차 판매 금지' 무효화 법안이 가결되었으며, Tonawanda 공장이 위치한 New York 州에서는 ZEV 관련 규제의 일시 중단 가능성 시사

GM('25.5.27.) <https://bit.ly/4khUwxA>
GM('25.5.28.) <https://bit.ly/43MFlp9>

Reuters('25.5.28.) <https://bit.ly/3FuRivk>

Tonawanda 엔진 공장은 1938년부터 운영된 유서 깊은 곳으로, '23년 GM과 전미자동차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기차 구동부품 관련 3억 달러 규모 투자가 결정된 곳이기도 함. 현재까지 동 공장에서 전기차 구동부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연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, 美 전기차 속도 조절 기조가 재확인되는 사례로 보임

◆ Toyota·Nissan, 中 특화 전기차로 중국 시장 재공략 시동

- ▶ Toyota·Honda·Nissan은 '24년 중국에서 약 33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, 이는 '21년비 약 30% 감소한 실적임. 이들은 '22년부터 중국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'25년 출시된 모델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반등 기대를 높이고 있음
- (Toyota) '25.3월 ^(합작사)GAC Toyota Motor가 개발한 저가형 소형 전기 SUV 'bZ3X'(10.98만 위안) 출시 이후, '25.4월 말까지 약 1만 대 인도
- * Toyota 중국 판매량('25.4월): 완성차 14.3만 대(전년비 21%), 전기차 9,400대(전년비 84%)
- (Nissan) '25.4월 말 ^(합작사)Dongfeng Nissan이 개발한 전기 세단 'N7'(11.99만 위안) 출시 이후, '25.5월 중순까지 주문량 1만 대 돌파
- * Nissan의 중국 신차 판매량은 '25.4월 전년동기비 16% 감소했으나, '25.1월 이후 최고치 기록

Nikkei Asia('25.3.7.) <https://bit.ly/43M4FwB>
electrek('25.4.28.) <https://bit.ly/4mxN5nz>

Nikkei Asia('25.5.24.) <https://bit.ly/4dWrWzD>

Toyota·Nissan이 중국 특화 전기차 모델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노력 중임. 이러한 시도에 단기적으로는 BYD 發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 재점화, 중장기적으로는 中 현지 업체 및 역량에 의존하는 방식의 지속가능성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

◆ 중국 승용차 자동긴급제동장치(AEB) 의무화 동향

- '25.5월 중국 표준화위원회는 '경형자동차용 자동긴급제동장치(AEB) 기술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(轻型汽车自动紧急制动系统技术要求及试验方法)' 초안을 발표
 - * AEB는 차량이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충돌이 예견되면 자동으로 감속·정지하게 하는 주행보조 시스템. 미국·EU·韓 등은 신차에 AEB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기준을 강화 중
- 현재 중국은 상용차에만 AEB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'28년 1월 1일부터 승용차(M1)와 경형상용차(N1)*에도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
 - * 현행: M1(최대수용인원 9명 이하)은 AEB 장착 권고 대상, N1(3.5톤 이하 트럭 등)은 규정 없음
- 해당 규정은 고가 승용차보다는 저가 승용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 - * 중국승용차연석회의(CPCA)에 따르면 '25년 1~2월 기준 전체 승용차 AEB 장착률은 53.2%, 가격별로는 △30만 위안(약 5,730만 원) 이상 고가 차량은 90% 이상, △8~16만 위안 이하 중저가 차량은 50.5%, △8만 위안(약 1,500만 원) 이하 엔트리 차량은 2.6%로 격차가 큼

搜狐汽车('25.5.23.) <https://bit.ly/4kDxFMB>

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('25.5.) <https://bit.ly/4dD70gx>

중국의 승용차 AEB 장착 의무화는 자국의 안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안전성 규제 강화 기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
◆ 인도 Motherson의 Marelli 인수 추진 동향

- 경영 재건 중인 日-伊 Marelli에 대해 印 부품사 Motherson이 인수를 제안
 - * 이번 인수는 Motherson의 글로벌 부품사 Top 10 진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
 - * Marelli는 日 Calsonic Kansei(과거 Nissan 계열 부품사)가 모태로, '17년 美 사모펀드 KKR에 인수된 뒤 FCA(현 Stellantis) 부품 부문과 합병되며 출범. '22년부터 경영 재건을 시도했으나 주요 고객사 Nissan·Stellantis의 판매 부진으로 재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중
- 일본계 채권단은 인수안에 긍정적이나 외국계 채권단 일부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, 채권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로 거래 성사 여부는 불확실함

NHK('25.5.), <https://bit.ly/43H7vBV>

Economic Times ('25.5.26.) <https://bit.ly/4kEW0la>

印 Economic Times는 日이 인도산 車 수출대상국 Top 5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도함. 현재는 주로 Suzuki, Hyundai 인도공장 생산모델이 수출되고 있음. Motherson은 '25.2월 Honda 계열 부품사 Atsumitec도 인수한 바 있으며, 일부 日 언론은 Motherson이 Marelli를 인수하면 일본-인도 간 부품 車 공급망 연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

◆ BYD 주도하에 중국 자동차 업계 가격인하 경쟁 재격화

- 최근 BYD, Geely 등 중국 주요 車 제조사가 대대적 가격인하 경쟁에 재돌입
 - * 가격경쟁 배경에는 공급과잉, 기술전환, 정부 규제 강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중
 - *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격인하 경쟁으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며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함(BYD·Geely 8% 이상, GWM 5% 이상)
- 이번 가격인하 경쟁은 BYD가 시작, 여러 자동차 제조사도 경쟁에 돌입
 - * (BYD) '25년 5월 23일 22개 모델의 가격을 최대 34%까지 인하한다고 발표
 - * (Geely) 5월 26일 Geely Galaxy 브랜드 주요 모델 등의 가격을 최대 18% 인하한다고 발표
 - * (그 외) Leapmotor, SAIC-GM 등도 가격인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Chery, Changan 등도 가격인하 경쟁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
- 가격경쟁 재격화의 배경에는 생산과잉으로 누적된 물량 부담*, 배터리 안전 기준 강화**, 자율주행 시스템 확산***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
 - * 중국 자동차 제조사는 생산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내수경제 부진으로 소비자 수요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공급과잉이 발생. 중국 업계에서는 이를 '구조적 생산과잉(结构性产能过剩)'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, 가격인하를 통한 물량 소진 압력이 증가 중
 - ** '25.3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 국가표준(GB 38031-2025)을 공표, '26.7월부터 신기준을 시행할 예정임. 기존 모델은 신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 선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기준 적용 전 물량 해소 필요
 - *** BYD는 '25.2월 자사 L2 자율주행 시스템 DiPilot(God's Eye)를 모든 신차 모델에 탑재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구형 모델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음
- 중국 정부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 중
 - *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'25.5월 과도한 가격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경고
 - * 상무부는 자동차 제조사, 중국자동차공업협회, 중국 딜러사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회담을 소집. 일부 업체의 '0km 중고차' 관행과 같은 과도한 경쟁 행위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(0km 중고차: 실적을 위해 출고한 뒤 실제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로 유통하는 행위)

Reuters('25.5.27.) <https://bit.ly/4dOEdpK>

Reuters('25.5.27.) <https://bit.ly/4mIzFF9>

KOTRA('25.4.16.) <https://bit.ly/44Z1iDF>

Xinhua('25.5.20.) <https://bit.ly/3ZamFOH>

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저가 물량을 해외 시장에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,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음